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사순절의 묵상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일요일, 막11:1-11)
- ② 성전을 두번째 정결케 하심(월요일, 막11:15-26)
- ③ 유대인과의 마지막 논쟁(화요일, 막11:27-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화요일 오후, 마24:25)
- ⑤ 예수의 발에 두번째 기름을 부음(화요일 저녁, 눅 7:3-50, 첫번째는 막14:3-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화요일 밤, 막14:10-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심(목요일 오후, 막14:12, 31)
- ⑨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심(목요일 밤, 막14:32-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18:12-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막14:53-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금요일 오전, 눅22:66-71)
- ⑬ 빌라도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25)
-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서심(금요일 오전, 눅23:6-12)
- ⑮ 빌라도 앞에 두번째 서심(금요일, 눅23:13-25)
- ⑯ 십자가에 달리심(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막 15:16-41)
- ⑰ 묻히심(금요일 오후 6시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15:42-47)
- ⑱ 무덤에 머무심(토요일)
- ⑲ 부활하심(일요일 새벽, 막16:1-8)

『신약개론』 (이종윤목사 지음) 중에서

고난주간 주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새벽기도회 · 금식 등으로 고난에 동참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1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식, 특별금요기도회 등 각종 기도 등 모임을 갖게 된다.

특별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의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인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무덤에 장사

되시기까지의 고난의 행적을 상기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이종윤 목사가 인도하며 새벽 5시 30분에 1층예배실에서 갖는다. 십자가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금 처한 갖가지 위기와 고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한다.

28일(금)은 금식일

고난주간 동안 내내 참회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주님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28일)에는 해 있는 동안 금식을 선포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했다.

구제위원회(위원장 이남호장로)에서는 고난주간에 금식과 절제를 통해 모은 금액을 사랑의 성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식헌금은 다음 주일(30일) I·II·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바치면 된다.

특별금요기도회

저녁 9시 연합모임

평소 심야기도회로 모이던 금요일 저녁 9시에는 고난주간 특별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다락방모임은 쉽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교구별모임과 다락방 모임은 이날 저녁 9시에 열리는 특별 연합기도회로 대체된다.

목회자세미나 내일 개강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개신연구원이 주최하는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내일(24일) 오후 2시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이번 학기에도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가 로마서를 강해하는 법을 강의한다.

한편 제 2교시는 국내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이번 학기 주제에 맞는 특강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복음과 상황’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4면)

아담성경반 개강

27일(목) 오전 6시10분 ~ 7시

남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담성경반’ 제 1학기가 27일(목) 오전 6시 10분에 개강한다. ‘아담성경반’은 1년에 2학기제로, 1학기에 10회의 강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번 학기 강의는 5월 29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계속 된다.

강사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 부교역

자들이다.

강의는 오전 7시까지이며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등록금은 한 학기당 10,000원이며 두 학기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여성도들의 청강도 환영하며 여성도의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담성경반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테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후원한다.

창세기
강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창세기 48장 21 - 22절)

이종운 목사

성도라고 해서 모두 죽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임종에서 긴 간증과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간증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맏아들 르우벤에게 한 예언의 기도입니다.

1. 르우벤의 특권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스불론, 잇사갈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성경은 그에 대하여 “르우벤은 장자요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상속을 받고 또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 특권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무섭게 유대인을 책망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성전과 언약과 양자됨과 영광과 기적과 은혜가 있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2. 잃어버린 특권

르우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상실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인 빌하를 범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창35:22),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대상 5:1 - 2). 르우벤은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영원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혹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와 불순종은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죄는 삼사대까지

혹은 수천대까지 멸하게도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르우벤의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하다” 고 했습니다. ‘탁월치 못하다’ 는 것은 건실치 않고 안정성이 없음, 절제하지 못함, 훈련되지 못함 등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은 마치 책상 다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뢰할 수 없고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르우벤, 그는 훈련되지 못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일에 보면 유다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왕, 솔로몬왕, 요시아왕, 그리고 보아스와 이새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모두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밖에 요셉 지파나 레위 지파들도 다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자손들 중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나 기억될 만한 위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450년이 지난 후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다”(신 33:6).

이것은 실제로 나타나서 민수기 1장을 보면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이라고 했는데 후일 민수기 26장 7절을 보면 43,730명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르우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왕하 10:32 - 33). 장자권은 이미 요셉에게로 넘어갔으나 심판은 장자였던 르우벤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3. 마지막이 처음이 될 것이다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 죄의 슬픈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이 처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상실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무욕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6 - 29).

우리는 영적 특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복음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현명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받은 특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르게 누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웬말인가 날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왕자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머리돌 곳조차 없었던 비참한 생애를 살고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듯 심한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저주와 곤욕을 당하셨다니 이 웬말이며 어찌된 영문일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충성을 결심한다.

▶생활 속의 단상

“고난의 유익에 대하여”

강민희(시온찬양대 지휘)

■...피아니스트가 팔을 쓸 수 없다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기쁨도 감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있는 고통도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리라. ...■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내게는 큰 일일 수 있고, 내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지금부터 서술하려고 하는 나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다.

6년 전 유학 초기의 일이다. 음악가들 - 그 중에서도 특히 피아니스트들 - 은 대개 자기의 인생방향을 일찍 정한 사람들이라 어려서부터 모든 생활이 음악과 연관되어 있고 많은 시간을 연습이라는 자기 극복의 시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남보다 더 쪼개 써야 하는 시간,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연습만은 게을리 하지 않으며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공부와 연습에 할애하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며 살았다. 그때 나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연습을 무리하게 한 나머지 팔에 힘을 쓸 수가 없어 전반을 누르 기에도 힘겨운 상태가 되었다. 피아니스트가 팔을 쓸 수 없다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의미도 기쁨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러 가지 일에서 한걸음 떨어져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내 자신이 너무 보잘 것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했다. 석달쯤 지난 뒤 나는 다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팔에 힘이 회복되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도 나는 언제이고 다

시 팔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피아노 못치게 된 것이 무슨 큰 일인가 싶을 수도 있겠고 나보다 훨씬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다. 그러나 혹 이 글을 읽고 한 분이라도 공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어쨌거나 난 내 삶에 가장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낙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을 모두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에 무슨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하겠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아무 것도 갖지 않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한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게 있는 기쁨도 감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있는 고통도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리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임을 알았다.

▶순례길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손지희(청년부)

한 청년의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 입문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시다.

새벽에 전해 들은 갑작스런 동생의 교통사고 소식. 처음에는 장이 끊기는 듯한 고통스러움으로 애통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올랐습시다. 육신의 정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밀려왔습시다. 여기 저기서 하늘 메시지가 밀려왔고, 사일장을 치르는 동안 구름메처럼 물려온 성도들, 특별히 대학부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은 동생 호선이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습시다.

모두가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말씀 읽기가 계속된 시간들은 주님을 몰랐던

■...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

호선이의 친구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해보는 놀라운 복음의 순간들로 이어졌습시다. 친구들을 전도하게 해달라던 호선이의 생전의 기도가 놀라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시다. 그리고 우리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도 피부 깊숙히 다가왔습시다.

입관예배를 드리며 큰 사고를 당하고도 몸이 반듯하고 이마에 조그마한 상처만 있을 뿐 너무도 평안한 얼굴로 잠든 호선이의 차가운 육신을 보았습시다. 호선이를 화장할 때는 어머니가 염려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굳건히 잡아주셨습시다. 우리는 “호선아! 하늘에서 만나자”라는 외침으로 차가와진 육신조차 볼 수 없는 곳으로 동생을 보냈습시다.

사랑하는 호선이를 보내고도 우리 가족이 곳곳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에는 위로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

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겹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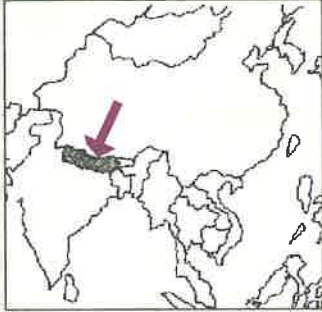
호선이의 집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일기를 보았습시다. 97년 계획 가운데 첫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었고 2월 계획이 ‘철야기도회에 빠지지 않기’ 였습시다. 그의 기도제목이 항상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염려하던 동생이 아니었다는 생각과 주님께 책망받아야 할 의식과 위선의 모습은 바로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도전을 받기도 했습시다. 그것은 제 안일한 신앙생활에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항상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도와주시는 모든 성도들께 호선이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신 것에 힘입어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고 호선이의 뉘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 8차 킴치신학세미나 참가국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순례

네팔 (Nepal)

- 면적 141,000km²
- 공용어 네팔어
- 수도 카트만두
- 인구 20,188,000명(95년 현재)
- 경제 고립된 자급경제. 지형이 험난하며 살기에 알맞은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다. 도로와 농업개발, 사회개발 사업 등이 느리다. 1인당 국민소득 \$170(미국의 0.9%), 국민의 40%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 종교 힌두교가 국교. 1991년 이래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개종은 금지됨.
힌두교 89%, 불교 7%, 회교 3.5%, 기독교 0.58%, 카톨릭 0.02%



■ 네팔은 지금

- ① **핍박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 1951년에 처음 복음에 대한 문이 열렸다. 1960년에 25명이 세례를 받았고 1991년에는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예배처가 전국에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여러 종족 집단과 신분계층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다.
- ② **안정이 요구되는 정치:** 정치적인 안정과 종교적 자유에 관해 애매하게 기록된 헌법 조항을 정부가 바르고 공정하게 해석하도록 기도하자.
- ③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각 종파와 교단들:** 각 종파와 교단에 자유가 주어졌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 교회마다 죄, 인종적 분열, 교리적 논쟁, 외화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 ④ **위기에 처해 있는 교계 지도력:** 몇 안되는 전임 사역자들이 넓은 지역에서 순회설교를 해야 한다.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 지속적이지는 못하다. 더 많은 교계 지도자가 세워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도록 기도하자.
- ⑤ **선교단체들:** 선교단체들은 큰 역할을 감당하며 질병과 문맹으로 고생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농업, 보건, 교육을 개선하고 있다.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이 네팔인 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기도하자.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프로그램

주제 - “복음과 상황”

실시일	제 1 교시	제 2 교시
3. 24.	로마서강해 이 중 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적 상황과 기독교 나학전 (서울대)
3. 31.		북한의 상황과 한국교회 확산회(소망교회)
4. 7.		사회적 급변과 신학 조종남(명지대)
4. 14.		복음전도와 상황 전호진(아신대)
4. 21.		성경해석과 설교 박준서(연세대)
4. 28.		복음과 문화 김성태(총신대)
5. 12.		기독교 신앙과 시민운동 김찬국(상지대)
5. 19.		신학교육의 현실과 제언 이종성(기독교학술원)
5. 26.		새벽기도와 교회 부흥 김삼환(명성교회)
6. 2.		통일조국의 시민의식과 기독교 김동길(전 연세대)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지난 18일(화)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청 산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에서 강의하였다. 또 지난 20일(목)에는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전남도회 교역자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되어 강의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도소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윤 목사) 월례 모임을 지난 14일(금) 백주년기념관에서 주재하였다.
- * 이영희 집사(타이부 지도, 4교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석적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제출하여 신학석사(M. A. in Theology) 학위를 받았다.
- * 조은주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니스트, 4교구)는 25일(화) 오후 7시 30분 경동교회에서 파이프로르간독주회를 연다.
- * 홍정호 장로(교육위원장, 제 5교구장)는 봉천동에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26일(수) 준공감사예배를 드린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추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제 8차 킴치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